

법익 조대 **법룡 스님** 대구 대원사 주실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정진하는 것, 이것 말고도 무슨 가르침이 더 있겠소. 불자의 삶은 그 자체가 기도이고 수행이야 하는 것이지!
“작고 보잘 것 없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온 마음을 쏟아 바라보면 온 우주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알고 스스로 정진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이주일씨의 아름다운 회향

“뵈기를 보여드리겠다”며 ‘일단 한번 보시라’던 회극인 이주일(본명 정주일). 8월 27일 폐암으로 사망하기까지 그의 62년 일생은 ‘아름다운 회향’으로 막을 내렸다.

유랑극단의 막간배우로 출발한 그의 회극인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감동적인 연기는 부병중의 행적들로 모아진다. 폐암 말기라는 비참한 현실을 딛고 금연 홍보대사로 변신해

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낙도 어린이 돕기 등 남모름 선정을 해왔다. 그의 이 같은 선행이야말로 우리사회에 진정한 회극인이 무엇인가를 은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살아생전 이주일씨는 봉은사 상호회인 지장연화회에 가입하고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줄 것을 유언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따라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고 그의 유해를 화장했다.

49재는 9월 2일부터 10월 14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봉행된다. 불자로서의 바른 길도 흐트러짐없이 걸었던 것이다. 그래서 빈소에서 울려 퍼지는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의 독경과 합창단의 ‘고운님 잘가소서’라는 제목의 조가는 조문객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과 지인들도 왕생극락의 염원이 더욱 간절했다. 아마도 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와 7대 독자인 아들의 위패가 모셔진 강남 봉은사에서 활짝 웃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회극인 이주일. 그는 비록 열 걸이 못생겨서 최승렬을 지는 물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만은 이세상에 사표가 될 것이다.

김두식(뉴미디어부 기자)

비구니회관 ‘법룡사’ 가족전법도량 선언

“엄마아빠 손잡고 절에 오세요”

23일부터 영어강좌·음식만들기·선무도 등 진행
관음사·화계사 등 30여 사찰도 ‘일요가족법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가족 단위의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과 직장불자회에서 가족법회나 수련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등을 가족전법도량’을 선언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온 가족 불자회’를 위한 포교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서울 강남 수서동에 소재한 비구니회관을 이웃·가족과 함께하는 ‘열린 전법도량’을 만들

기 위해 23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비구니회관은 참선센터, 법룡불교대학, 법룡봉사회, 법룡상담센터 등을 두고 일요일 가족이 법당에 모여 법회에도 참석해 함께 민요를 부르고, 아이들은 한자와 선무도를 배우도록 하는 등 가족중심의 법회를 운영한다. 가족이 함께 음식 만들기, ‘부모와 함께하는 영어 이야기’, ‘어린이와 어머니를 위한 바이올린 레슨’, ‘가족이 함께 쓰레기 즐기기’ 등 많은 프로그램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구 관음사는 지난 7월 감포에 가족수련원을 개원하고, 중고생과 학부모를 위한 릴레이 강자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5000여 명의 부지에 법당, 수련장, 주말 농장, 도자기 공장 등 시설을 갖춘 관음사 감포본원은 매주 100여 명을 모집해 1박2일 주말 수련법회를 운영, 주5일근무제를 위한 바이올린 레슨, 가족이 함께 쓰레기 즐기기 등 많은 프로그램

청주 관음사의 가족 수계법회, 안성 도피안사의 가족포살법회 등도 참여자가 많다. 이밖에 화성 용주사, 예산 수덕사, 대구 동화사, 서울 진관사, 흥천 칠불선원은 여름 가족수련회를 성황리에 회향했다.

성북송무사무소법우회, 서초법조인반야회, 한국전력반야회, 한국항공우주산업불자회, 대한중석초경석불회 등 30여 직장불자회가 가족단위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단체(성북송무사무소, 월성원자력, 울진원자력 등)들은 부인들의 별도 모임이 구성되어 자체법회와 가족법회를 열기도 한다. 석불선양회 등 당사 모임들은 가족이 함께 석불 친견 뒤 강의를 듣는 등 온 가족이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있다.

각 사찰과 단체의 가족법회나 모임이 확산되고 있으나, 부모와 함께 할 프로그램이 부족해 전문강사 양성과 불교적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본각스님은 “어린이와 부모님이 손잡고 찾아와 배우고 즐기는 사찰, 가족 및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면 포교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남동우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찬불가 보급

1. 지난해 설문에서 대부분의 불자들이 법회시간외에 찬불가를 부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 이유는?
①의식에서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 ②재미가 없어서 ③아는 곡이 많지 않아서 ④흥이 안나서
2. 찬불가의 보급이 불자의 신앙과 포교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큰 도움이 된다 ②약간 도움이 된다 ③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④전혀 도움이 안된다

설문 참여: 9월 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집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6호 9면에 실립니다.

태고종 초대 원로회의 개원

의장 일우, 부의장 보봉·원법 스님 추대

태고종 초대 원로회의 개원법회가 8월 27일 서울 63빌딩 3층 코스모스에서 봉행됐다.

17명의 원로위원들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총무원 부국장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초대 원로회의장에 일우(청도 보현사 주지)스님, 부의장에 보봉(서울 법혜사 흥법원) 원법(대전 보은정사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일우스님 인터뷰 3면

사명감을 가지고 종무를 사임없이 추진하는 불교 화합승가불 이루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 태고종도는 종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공존공영의 태고승가 공동체 실현에 동참해달라 등 3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종단의 최고 상의회 기관으로 종정 추대권, 종헌 개정권, 인준권, 총무원장 인준권 등 종단 중요사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갖는다.

태고종 초대 원로회의의 의원은 청암, 혜경, 연운, 금봉, 자공, 행법, 청경, 혜봉, 남파, 청은, 혜중, 혜암, 응수, 백파, 도운, 보안, 덕화, 혜초, 지족스님 등 모두 22명이다.

이경숙 기자 gilee@buddhapia.com



법룡스님, 막사이사이상 수상
정도의 지도법사 법룡스님(오른쪽에서 세 번째)의 막사이사이상 평화 및 국제이해 부문 시상식이 8월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이날 스님은 ‘평화운동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온갖 갈등과 분쟁,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단청전문가 등 10월 방북 초청

조선불교도연맹, 신계사 복원 논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은 8월 2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에 팩스를 보내 단청전문가 초청 및 단청재료지원, 신계사 복원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종단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10월경 단청전문가 2명을 포함한 6-7명의 방북대표단을 초청하겠다”며 “우선 가능하다면 먼저 일정상의 단청재료를 보내주면지 그렇지 못할 경우 단청봉사 지원의 사를 명백히 알려 달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조계종 총무원에도 공문을 보내 “현대 아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계사 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며 “가까운 시일내 금강산에서 신계사 복원봉사와 관련한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정보화’ 강연회

6일 조계사 교육관서

불교계의 정보화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가칭)불교정보화협의회는 6일 오후 4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불교정보화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중앙승가대 김응철교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계 언론사 등이 지난 4월 공동 주최한 ‘불교정보화실태조사’의 설문 분석 작업을 맡았던 김교수는

사행

승 상임은설위원 차차석
2002년 9월 1일부

부산지사 이전

새주소: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501번지 정독빌딩 503호
전화: (051) 632-0064

구독 신청 (02)737-0090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물”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현대불교신문사
인합카드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 02-725-1132
대표) 02-737-8881